



이광수의 두 가지 국민문학론

The Lee Kwangsu's two Theory of National Literature

저자
(Authors) 윤대석
Yun, Dae-Seok

출처
(Source) [한국문학과 예술 12](#), 2013.9, 23-37 (15 pages)
[The Korean Literature and Arts 12](#), 2013.9, 23-37 (15 pages)

발행처
(Publisher) [송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Institute of the Korean Literature and Arts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268333>

APA Style 윤대석 (2013). 이광수의 두 가지 국민문학론. 한국문학과 예술, 12, 23-37.

이용정보
(Accessed) 고려대학교
163.152.3.31
2016/06/15 18:1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이광수의 두 가지 국민문학론

윤대석*

국문초록

이광수를 비롯한 1920년대 국민문학론자들에게 근대문학이란 국민문학을 의미했다. 이러한 국민문학의 근대성이란 형식적인 독자성에서 마련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전통의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전통과의 연관성, 전지역적인 균질성이 근대문학으로서의 국민문학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국민문학이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독자성을 지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모방의 특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는 국민국가의 모듈성과 모방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에게 국민문학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요소였기에 그러한 모방성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이 점은 1940년대 국민문학에서 이러한 요소가 그대로 부활하는 것에서 잘 볼 수 있다. 이광수를 비롯한 김억, 주요한 등의 국민문학론은 1920년대 국민문학과 형식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질성은 국민의 소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문학의 형식성에서 생겨난다. 모든 국민국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균질적이고 전통에서 창출된 국민문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국가와 국민문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1940년대 ‘국민문학’론의 차이를 가지고 왔고, 그것은 세대적인 차원에서 드러났다.

주제어 : 이광수, 국민문학, 모듈, 모방, 전통의 창조

1. 민족주의의 모듈성과 모방성

1920년대 중반 이광수, 최남선, 주요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국민문학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론은 3·1 운동으로 집약된 식민지 지배하의 민족 정신, 즉 한국 민족주의 이념을 최초로 반영한 문학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¹⁾ 엘리트 혹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계몽적 민족주의 단계를 지나, 3·1 운동을 계기로 성장하기 시작한 대중적 민족주의 이념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 1920년대 중반기이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받아들인 것이 국민문학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문학론의 실제 전개를 보면 국민문학파로 묶여지는 최남선, 이광수, 주요한, 김억, 김동인, 정인보, 손진태, 이병기, 염상섭, 김영진, 이은상, 양주동, 정노풍, 김성근, 홍사용, 김소월, 변영로, 유도순, 조운등은 각기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의 유파를 형성할 정도로 개인적 유대감을 가지거나 카프와 같은 조직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국민문학파가 카프에 대타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서 말미암는다. 따라서 막연한 민족주의적 감정만을 가진 문학자, 그저 카프에 동조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이 부류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논문이 시도하는 1940년대 ‘국민문학’론과 1920년대 국민문학론의 비교 고찰을 위해서는 국민문학론의 선별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을, 일관되게 민족주의 사상을 주장했고, 그러한 사상을 문학에 반영했으며, 프로문학자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광수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광수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문학자는 동우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주요한과, 동일한 사상적 궤적을 걸어갔던 최남선인데, 이들의 문학 활동도 이광수의 국민문학론이 가진 연속성의 기반을 해명하기 위해 참조점으로 사용할 것이다. 논쟁사라면 양주동같은 절충파가 중요시되겠지만, 일관적인 문학론이라는 이 논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 사람을 논의의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국민문학론을, 외래 사조, 외래 문화의 수용에 따른 충격을 전통의 복귀에 의해 극복하고자 했던 일종의 문화적 주체 확립 운동의

1) 오세영,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89, 68쪽.

하나로 파악한다.²⁾ 조선심이나 조선혼 등을, 한민족의 본질적인 면을 파악하고 문학을 설명하는 기본원리로 삼았으며, 서양적 형식이 아니라 시조·민요로 대표적인 시형을 이룩하려고 했고, 한글에 대한 관심을 고조했다는 점 등이 1920년대 국민문학론에 그러한 평가를 가져다 준 요인이다. 동시에 조선심이나 조선혼이 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형식의 창출이 아니라 전통적 형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점 때문에 복고나 국수주의로 폄하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국민문학론을 복고적이라고 평가내리는 것의 문제점은 그러한 복고 혹은 국수주의가 근대적 국민개념 위에서 진행된 것임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반대로 국민문학론을 주체적이라고 파악하는 관점은 국민문학의 모방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국민문학론이 근대적인 기반, 즉 근대적인 국민과 민족 개념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과 국민문학론이 주체성, 근원성, 본질성을 주장하지만 그 자체가 모방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글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1940년대의 국민문학론이다. 그러한 모방성의 궁극적 모습이 내선일체로 상징되는 새로운 국민국가, 새로운 국민문학의 창출이기 때문이다. 우선 여기서는 그러한 파악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일반적 민족·국민의 개념과 민족주의, 혹은 국민주의의 모듈성, 모방성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민족이나 국민이라는 개념은 근대에 와서 비로소 성립되었다.³⁾ 로망스어 nation의 어원인 natie는 중세에는 ‘혈통’ 및 ‘가계’라는 의미를 가졌고, 그것에서 파생한 nation조차도 1884년 이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의미로 쓰

2) 오세영, 앞의 책; 김용직, 『국민문학과의 평가』, 『한국근대문학의 사적 이해』, 삼영사, 1977; 김용구, 『‘국민문학’에 대한 고찰』, 서울대 석사, 1980. 이 외에도 조현현, 백철 등의 기존 문학사가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3) E. J. 홉스봄(저), 강명세(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994, 32~37쪽.

이지 않았다. 심지어 nation은 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였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nation에 상응하는 용어가 없었다. ‘民族’, ‘國民’이라는 용어는 nation의 번역어로서 일본에서 만들어져 중국과 한국으로 역수입된 근대적 조어였다.⁴⁾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근대성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운동은 대중정치적 등장과 함께 만들어진 근대적 산물이다. 앤더슨에 의하면 그러한 민족주의, 국민주의는 모듈화(모방)된다. 즉 규격화되고 독자적 기능을 가진 교환 가능한 구성요소로서 민족주의, 국민주의가 내용만 달리하여 복제된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모방 과정과 모방의 은폐 과정이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 국민주의 운동의 모방성 개념을 통해서 1920년대 국민문학론을 고찰하고 그것을 1940년대 국민문학론과 비교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전통의 창출 - 1920년대 국민문학론

이광수는 『문학 강화』(『조선문단』, 1924.10~1925.2)에서 동아시아에서 문학의 개념이 모방에 의해 생겨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문학의 가치』(『대한홍학보』, 1910.3)나 『문학이란 何오』(『매일신보』, 1916.11.10~23) 등 그 이전에 발표된 글에서 주장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일본이나 조선이나 또는 중국에서까지도 문학이라 하는 것은 서양어 Literature의 번역인 것을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전집 10, 381쪽)

4) 西川長夫, 『國民國家論の射程』, 柏書房, 1998, 85쪽.

5) 베네딕트·안더슨著, 白石さや·白石隆譯, 『増補想像の共同體』, NTT出版, 1997, 22쪽.

조선에서 근래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겨서 놀랄 만한 발달을 한 것을 꼽으면, 양복·맥주·연애,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학교 교육과 문예와 사회주의와는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전집 10, 407쪽)

조선시대의 詩와 文과는 다른 것으로서 ‘문학’이 서양에서 일본을 거쳐 조선에 들어온 것은 192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10년이 채 안된 일이며, 조선 문단은 이러한 새로운 것으로서의 문학을 건설해 가는 도중이라는 것이 이광수의 주장이다. 조선에서는 문학이라고 하면 사서오경이나 제자백가와 사기 등을 연상하기 쉽지만, 이러한 것은 문학이 아니라 철학, 혹은 정치학, 윤리학에 속할 것임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이광수가 서양적 학문의 유형을 통해 문학 개념을 정립해 나가려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범주들을 분류하고 배제하고 포섭하는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리는 문학/비문학이라는 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근대의 문학이란 바로 국민문학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1910년대 이광수의 인식에서 조금 더 나아간 지점이다.

그 국민의 정치·종교·습관 등에도 표현되지만, 가장 순수하게 표현되는 데가 문학, 기타의 예술이다. 그러므로 국문학을 배우는 동안에 젊은 국민은 그 선조의 정신, 즉 국민정신의 감염을 받는 것이다. 이러므로 현대의 국가가 국문학을 존중하는 것이다.(전집10, 379쪽)

이광수는 문학이 내적 충동의 발산이며 그것이 도덕감, 윤리감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문학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이 때 그는 그러한 내적 충동, 감정, 도덕감, 윤리감을 개별 민족, 혹은 국민과 연관시켜 그것을 매개로 해서만 근대 문학이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이광수는 literature의 번역어로서 ‘문학’이 장르, 혹은 형식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정상태, 즉 도덕감, 윤리감의 표현으로서 국민적

감정이 드러나는 매개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서구문학 ‘장르’의 이식으로서 근대문학을 주장한 임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가 시조와 민요를 재발견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다. 시조가 literature의 번역어로서 문학에 해당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의 민족성, 국민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조선민족의 순수한 사상 감정-외래 사상의 영향을 받음이 비교적 적은-을 오늘날에 찾아 볼 데는 시조밖에 없다.”(전집 10, 444쪽) 그에게 시조나 민요가 literature의 번역어로서 문학 개념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없다. 그가 생각한 literature의 개념 자체에 국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조 부흥운동을, 이미 있었던 전통의 복구가 아니라 전통을 창조한 것으로, 나아가서는 날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교적 이상 세계에 대한 혐오감을 지니고 있었던 이광수가 시조를 국민문학으로 발견하는 것은 시조가 포함하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시조가 지닌 형식미와 그것이 국문으로 쓰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조론은 철저하게 형식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창출된 전통은 과거의 맥락과 근본적으로는 단절되고, 형태적으로만 관련성을 가지면서 국민성, 민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 도입된다.⁶⁾ 시조가 가진 세계관은 배제하고 그것이 가진 형식미만 취한 결과 시조는 국민문학으로 재발견될 수 있었다.

이광수의 시조 창작도 이 점을 넘어서지 못한다. 한학적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이병기, 이은상의 시조와 최남선, 이광수, 주요한의 시조의 중요한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현대시조를 분석한 김용구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님’이 대부분 임금, 군주를 의미하는데 비해 육당 등의 시조에서 ‘님’은 조국 혹은 민족을 의미하며 자연은 국토로 변용되어 나타난다고 한다.⁷⁾

6) 흡스봄·랑거(편), 최석영(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6, 40쪽.

7) 김용구, 앞의 논문, 152쪽.

누이야 오라비야! 빈터여든 갈아보세
 벼은 산 입히고, 묻힌 개천 쳐내고서
 옛보다 나은 조선을 이뤄보세 이뤄보아
 (『조선』 중 1수)

月林江 건너서며 檀君窟을 묻습니다
 산보러 왔소리가 절 보러나 왔소리가
 우리님 사신 곳이니 터보러 왔습니다.
 (『태백산』 중 1수)⁸⁾

봉건적 세계관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임금을 정점으로 한 수직관계이다. 이러한 수직관계 때문에 임금과 나의 관계만 있을 뿐, 같은 임금을 모시고 있다고 하여 신하나 백성들 사이에서 수평적 유대감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대적 민족 개념은 민족을 성스러운 존재로 두고서 그 아래에서 같은 민족으로 유대감이 발생한다. 그것이 상상적 공동체인건, 실체적 공동체인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민족 앞에서 평등하다는 균질한 유대감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시 『조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유대감의 표현이다. 아래의 시에서는 조국, 민족으로 상징되는 ‘님’을 중심으로 자연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은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으며 ‘우리님이 사신 곳’, 즉 국토로서의 중요성밖에 가지지 못한다. 아니 국토이기 때문에 민족, 혹은 국가의 신성함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최남선과 이광수의 수많은 기행문에서 반복·재생산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기행문을 통해서 자연이 아니라 민족의 터전으로서의 국토가 찬양되고 있는 것이다.

시조가 그대로 반복·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문학이라는 이름하에 재발견되고 창출되는 것은 그것이 민족의 정서를 잘 반영하기 때문이 아

8) 인용문은 모두 『이광수 전집(9)』에서 가져왔다.

니다. 시조가 먼저 발견되고 거기에 국민문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도 아니다. 국민문학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고, 시조가 발견·날조되어 등장한 것이 시조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⁹⁾

시조가 현존한 조선 문학 중에 최고의 형식임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으로 말하면 詩經이요, 일본으로 말하면 만엽, 고금의 和歌에 비할 것이 조선에 있어서는 시조다.(전집 10, 443쪽)

이광수에게 시조가 중요하게 생각된 이유는 그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 즉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공동체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민족, 혹은 국민이 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의 표지가 국민문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그러한 모방성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백사상’¹⁰⁾(이광수), ‘밝사상’(최남선)과 같은 민족·국민의 본질성을 고대 조선에서 찾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광수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으려 한 민족의 단일한 사상적 근거는 실상 고대 조선의 사상과는 무관하고 단지 형태적 연관성만 가질 뿐이었다. 그것은 뒤에서 볼 1940년대 국민문학론에서 동일한 현상이 달리 해석된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9) 흄스봄은 “이전의 문화를 취하여 민족으로 바꾸며, 어떠한 때에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며, 이전 문화를 말살한다. 민족이 국가와 민족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설명한다.(흄스봄, 앞의 책, 26쪽)

10) 이광수, 『조선민족론』, 『동광총서』, 1933.6~7.

3. 국민문학론의 상대성 - 20년대와 40년대의 국민문학론 비교

1940년대 전반기는 국민화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국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일단 괄호 속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1940년대 전반기를 본다면 그것은 국민이 아닌 자를 국민으로 만드는 과정이 압축되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의 폭력성은 물론이고 그 회로 속에 말려들지 않으려 했던 자들의 고민까지 압축되어서 나타난다. 1940년대 국민문학론이 1920년대 국민문학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압축성 때문일 것이다.

국어의 혜택/강요, 생활의 개량/생활의 뿌리뽑힘과 같이 양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화의 과정이다. 하나의 공동체를 오랜 기간 지속해왔다는 사실이 그러한 양가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1945년 해방에 의한 전도된 인식 속에서 우리는 후자만 보게 되었지만, 이광수, 주요한, 최남선 등 1940년대 국민문학론자들은 오히려 전자에만 주목했다. 그러나 양가성을 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국민화 과정은, 혹은 과정으로서의 민족주의는 항상 그러한 양가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1940년대 국민 문학론은 1920년대 국민문학론을 비추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1940년대 국민문학론은 1920년대 국민문학론이 내용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2천만의 조선민족’이 ‘1억의 일본국민’으로, ‘조선어’가 ‘국어(일본어)’로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다. 그 기본적인 틀이란 근대 문학은 국민문학이라는 것, 국민문학은 국어를 바탕으로 국민의 정신을 반영한다는 것 등 근대 국민국가와 문학의 관계 일반을 말한다.

국민문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국가 생활이라는 것을 염두에서 떠나지 말고 지어진 문학이다. 국가 국민이란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이

어떠케 소중하고 고마운 것임을 곱히 느끼고 이 국가 생활을 통하여서 인류의 최고이상을 실현하자는 감격을 가진 작가의 작품이다.(『국민문학의 의의』, 『매일신보』, 1940.2.16)

석가조차도 인도인으로서 태어났으며, 인도인의 전통에 기초하여 인도인에게 교를 논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우주주의라고 할 만한 석가는 분명히 국왕에 대한 충의를 설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생활이 인간생활의 단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국가를 통해, 즉 국가에 대한 의무를 통해 인류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다.(『내선일체와 국민문학』, 『조선』, 1940.3)

1920년대 국민문학론에서 이광수가 문학이 국민문학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2장에서 이미 지적했다. 근대의 문학이란 국민문학이어야 할 것, 국민문학은 국민으로서의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 동일한 논리가 1920년대와 1940년대에 모두 주장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논리는 같더라도 분명 맥락은 다르다. 그것이 식민지 주체/식민지 본국의 논리, 혹은 저항 민족주의/제국주의의 논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관점은 일단 괄호 속에 넣어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서구식 개인주의에 대한 경계는 이광수의 1920년대 민족주의론에서도 발견된다. 개인은 민족, 혹은 국가를 매개로 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광수가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영미식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옛 조선인의 근본 도덕에서 찾고 있다. 전체 혹은 남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것은 관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옛 조선인들의 근본 도덕인 전체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인류의 정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정신이요, 도덕중에 가장 꼭지가는 도덕”이며 “신의 자리”이다.(『옛 조선인의 근본도덕』, 『동광』, 1932.6)

여기서 보듯이 민족, 혹은 국민으로서의 존재 근거를 전통 속에서 찾는

다는 점, 아니 전통을 재창조·재발견, 나아가 날조함으로써 창출해낸다는 점에서 1940년대 국민문학론과 1920년대 국민문학론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재래의 성명은 지나를 숭배하던 선조의 유물이다. 영랑, 술랑, 관창랑, 초랑, 소희(암), 이종, 거칠부, 흑치, 이런 것이 고대 우리 선조의 이름이었다. 서라벌, 달구벌, 재차과의, 흘골, 엇내, 이런 것이 옛날의 지명이었다. 그러한 지명과 인명을 지나식으로 통일한 것은 불과 6, 7백년이라는 일이다.〔창씨와 나〕, 매일신보 1940.2.20)

지명, 인명의 중국화, 의복, 풍 속의 중국화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인 종교(선왕과 및 역사, 민족적 위인 숭배를 중심으로 한)를 법령으로 탄압하고 중국 숭배를 국교적으로 강제하였다. (……) 모악원은 모화관이 되고, 각지의 ‘검’산은 모두 불교식, 또는 중국식 이름으로 변명해 버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춘부로 변하고 언니는 백씨니, 중씨로 변하고, 어머니는 선당이니, 자당이니, 모친이니 하고 중국식으로 변하고 말았다.(전집 10, 218쪽)

동일한 논리가 1920년대에는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위해 사용되고, 1940년대에는 다른 민족과의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동원되고 있다. 조선의 사상, 정신, 언어가 고대에는 순수한 상태로 존재했으나, 한문·유교가 들어와서 그것을 오염시켰다는 논리를 조선민족의 본질성의 근거로 사용한 것이 1920년대라면, 고대에는 일본민족과 조선민족이 같은 민족이었다는 근거로 사용한 것은 1940년대였다.¹¹⁾ 또한 이광수는 고대에는 조

11) 이러한 전통의 재창출이라는 점에서 1940년대 국민문학론에서 이광수, 주요한, 최남선 등 일찍이 1920년대 국민문학론을 주도했던 문학자들은 잡지 『국민문학』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최재서, 김종한 등과 미묘하게 차이를 보인다. 내선일체를 두고 전자가 내선은 원래 동일한 민족이었다는 본질주의를 주장

선어와 일본어가 동일했다는 것을 통해 국어(일본어) 사용을 합리화하며, 그의 본질적 민족론인 내선 동조동근론을 주장한다.

실제 창작에서는 일본의 和歌 뿐만 아니라 1920년대 국민문학론에서 사용했던 시조, 민요운율 등을 도입한다. 또한 1920년대에 조국, 민족으로 변화한 ‘님’의 개념, 국토로 변화한 자연의 개념도 한 번 더 굴곡을 겪게 된다.

부소산 올라서서 금강을 굽어보니
전정대 나린물이 낙화암을 씻어둔다
반월성 여름비 개여 풀이 더욱 푸르더라

천년이 꿈이런 듯 옛서울을 못보아도
외편에 새긴 연꽃 그날 숨씨 완연하다
그 문화 일본에 피어서 오늘 다시 보니라

신궁 참도의 흠을 파서 날르올제
부소산 피꼬리 소리울어 보내더라
손들어 땀을 씻으며 귀기울여 듣노라. (『부여행』, 신시대, 1941.7)

국토에 대한 예찬은 국민문학의 중요한 소재이다. 그러나 국토의 의미와 맥락은 1920년대와 1940년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위 시에서 그려지고 있는 부여는 내선일체라는 명목 하에 1940년대에 각광받게 된 유적이다. 이것은 백제와 아스카 시대의 일본과의 관련하에서 그 수도였던 부여에 조선에서 두 번째로 신궁이 세워지는 현장에 이광수가 근로 보국대로 참

하는 반면에 후자는 내선일체가 결의(동의)에 의해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각각 피히테와 르낭의 민족주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르낭(저), 신행선(역),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 피히테(저), 황문수(역), 『독일 국민에게 고함』, 범우사, 1997 참조.

여한 후 지은 시이다. 1940년대의 국토 순례는 주로 내지인 일본의 신사, 황거 등이 중심이었지만, 조선 반도에 대한 국토 순례도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물의 하나가 김동환이 편집한 『반도 산하』(삼천리사, 1944)이다. ‘님’의 개념도 민족, 조국이 아니라 천황, 일본으로 변형을 겪는다. 김억의 『님 따라 나서자』(『매일신보』, 1944.12.7)와 1943년 8월 『매일신보』에 연속적으로 게재된 김팔봉, 김상용, 노천명 등의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자』가 그 대표적 예이다.

위 시처럼 1940년대 국민문학에서 시조 형태와 민요의 율격을 빌린 창작물은 이광수 외에도 주요한, 최남선 등에서도 흔히 보인다. 민요의 율격을 차용한 주요한의 작품을 참고로 보면, “나라에 부름바다 가실적에는/붉은 당기 선물로 보내오리다/품 안에 지니시고 땀터에서면/총칼이 퍼부어도 마줄리없오.”(『당기』, 『춘추』, 1942.4)에서처럼 1920년대와 형식면에서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4. ‘국민문학’의 연속성

이상으로 이광수의 1920년대 국민문학론과 1940년대 국민문학론이 가진 형식적 연속성을 살펴보았다. 국민문학이란 근대문학이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통을 재구성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전통을 근대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가능해진 측면이 있다. 그것은 국민국가가 혹은 민족주의가 모듈과 모방을 통해 형성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것이 1910년대에 문학을 시작했던 세대들이었다. 김억, 주요한, 이광수 등의 1940년대 국민문학론이 그 아래 세대인 최재서, 유진오 등의 국민문학론은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아래 세대인 김종한과 같은 신세대의 국민문학론과 다른 것은 그 때문이다. 최재서, 유진오, 김종한 등

이 조선의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신지방주의’론을 펼쳤다면, 그 윗세대인 이광수, 주요한 등은 국민국가의 균질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내선일체론 가운데 평행제후론과 완전동화론의 대립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 대립에는 바로 세대적 감각, 즉 국민국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둘러싼 세대 인식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광수, 『이광수전집(9, 10)』, 삼중당, 1971.
 이광수, 『조선민족론』, 『동광총서』, 1933.6~7.
- 김용구, 『‘국민문학’에 대한 고찰』, 서울대 석사, 1980.
 김용직, 『한국근대문학의 사적 이해』, 삼영사, 1977.
 오세영,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89.
 르낭(저), 신행선(역),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피히테(저), 황문수(역), 『독일 국민에게 고함』, 범우사, 1997.
 흄스봄(저), 강명세(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994.
 흄스봄·랑거(편), 최석영(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6.
 西川長夫, 『國民國家論の射程』, 柏書房, 1998.
 베네딕트·안더슨著, 白石さや·白石隆譯, 『増補想像の共同體』, NTT出版, 1997.

투고일: 2013.8.11 심사일: 2013.9.5 ~ 2013.9.28 심사완료일: 2013.9.28

<ABSTRACT>

The Lee Kwangsu's two Theory of National Literature

Yun, Dae-Seok

For the theorists of national literature in 1920's including Lee Kwangsu, modern literature was directly national literature. Although modernity of national literature stems from the originality of literary form, it is possible through the invention of tradition. The relations with tradition and territorial homogeneity are the identifying marks of national literature as modern literature. Accordingly for them national literature has originality in the aspect of contents, but feature of mimicry in the aspect of forms. This aspect can be accounted through module and mimicry of nation-state. For them national literature was important not as itself but it was important for all of nation-state have national literature. It justified the module and mimicry of literature. Theories of national literature in 1940's had the same logical structure. Lee Kwangsu used the same logic to justify the national literature as the pro-Japanese literature.

Key words : Lee Kwangsu, National Literature, Module, Mimicry, The Invention of Tradition